



## 홍익인간 연대기의 고찰 : 단군신화의 변경과 홍익인간의 진화

A Study on the Hongikingan Chronology : Change of Dangun myth and evolution of Hongikingan

---

**저자** 김성환  
**(Authors)** Kim, Sung-Hwan

**출처** [단군학연구 \(41\)](#), 2019.12, 5-27(23 pages)  
**(Source)** [Journal of Dangun Studies \(41\)](#), 2019.12, 5-27(23 pages)

**발행처** [단군학회](#)  
**(Publisher)**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92456>

**APA Style** 김성환 (2019). 홍익인간 연대기의 고찰 : 단군신화의 변경과 홍익인간의 진화. 단군학연구(41), 5-27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7/10 16: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홍익인간 연대기의 고찰\*

## : 단군신화의 변경과 홍익인간의 진화

김성환\*

- |                  |                         |
|------------------|-------------------------|
| I. 홍익인간의 고대적 함의  | III. 홍익인간의 근대적 진화       |
| II. 홍익인간의 중세적 진화 | IV. 삼균의 홍익인간과 전병훈의 정신철학 |

### 【국문초록】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전해지고, 또한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한 현대 교육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의 국가를 세운 조상들이 단군신화를 만들고, 거기서 홍익인간 이념도 출현했다. 그것은 고대인의 상상세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변경되고 복잡해졌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신화는 선사시대에 이미 생겨난 이야기부터 각 시대마다 변형된 이야기들을 더하고 빼며 진화해왔다. 홍익인간이 고대 한국에서 사람을 도와 인간세계를 확충하려는 하느님의 의지나 명령이었다면, 중세에는 인간에 대한 교화 및 치화의 이념으로 변경되었고, 근자에 다시 인간을 널리 이롭게한다는 근대의 이념으로 진화했다. 그 신화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082)

\*\*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철학박사

여러 시대의 정치가와 역사가에게 영향을 주고, 민속과 종교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홍익인간이 현대 교육의 기본이념이 될 정도로 한국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홍익인간 이념이 진화한 연대기를 고찰하고, 그 토대에서 홍익인간을 재발견한 근대의 사상적 문법을 논구한다. 특히 조소앙이 삼균사상으로 홍익인간을 해석하여 통일국가건설과 세계일가 이상 실현의 최고공리로 삼은 사례에 주목하고, 그와 전병훈 철학의 유사성을 시론적으로 살핀다.

※ 주제어 : 홍익인간, 조소앙, 삼균, 전병훈, 정신철학

## I. 머리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홍익인간’ 개념은 13세기 말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 때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남아있다. 그보다 불과 10여 년 뒤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지은 『제왕운기』에도 역시 ‘홍익인간’이 보인다. 두 책의 단군신화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이는 일연과 이승휴가 각각 『고기』와 『본기』를 인용한 데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sup>1)</sup> 하지만 ‘홍익인간’을 말하는 문법은 거의 같으면서 약간 다르다.

『고기(古記)』에서 말했다. “옛날에 환인(桓因)[제석(帝釋)을 말한다.]의 서자인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해 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

1) 13세기 말 단군신화를 기록한 최소한 2종 이상의 문헌이 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일연과 이승휴가 각각 『古記』와 『本紀』를 인용한 것이 우연한 독서의 결과인지, 아니면 승려였던 일연과 당대 신진사류였던 이승휴의 사상적 견해에서 기인한 선택인지는 분명치 않다. 세심한 고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인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雄)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태백은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고, 이분을 일러 환웅천왕이라 하였다.”<sup>2)</sup> (『삼국유사』)

『본기(本紀)』에서 말했다.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환웅이라 하였다. [환인이 환웅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홍익인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하여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고 귀신 3천을 거느려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분을 일러 단웅천왕이라 하였다.”<sup>3)</sup> (『제왕운기』)

두 버전의 신화에서 ‘홍익인간’을 의도하거나 말하는 주체는 모두 하느님(上帝) 환인이다. 『삼국유사』에서 환인은 홍익인간을 ‘의도’한다. 아들신인 환웅은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해 구하고’(數意天下, 貪求人世), 아버지신 환인은 그런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며 홍익인간할 만하다’(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고 판단한다. 아들신의 의도는 ‘인간세상을 탐해 구하는’ 데에 있고, 아버지신의 의도는 ‘홍익인간 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삼위태백’은 아들신이 스스로 정한 목적지라기보다, 아버지신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아들신을 내려보

2) 『三國遺事』 卷第一‘紀異’ :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 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 雄率徒三千降於太白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生理化.”

3) 『帝王韻紀』 卷下: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 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壇樹下, 是謂檀雄天王也云云.] 令孫女飲藥, 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據朝鮮之域, 爲王. 故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 爲神, 不死故也.] 竝與帝高興戊辰, 經虞歷夏居中宸. 於殷虎丁八乙未, 入阿斯達山爲神. [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享國一千二十八, 無奈變化傳桓因.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聊復開君臣.[一作, 爾後一百六十四, 雖有父子, 無君臣.]

내는 선택지이다.

『제왕운기』에서 환인은 홍익인간을 ‘말’(물음, 명령)한다. 아버지신이 아들신에게 묻는 말은 다음 3가지를 함축한다. 지상으로 내려가겠는가? 삼위 태백으로 가겠는가? 가서 홍익인간하겠는가? 이는 물음인 동시에 명령이다. 아버지신의 그런 말을 아들신이 감히 어찌 거역하겠는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문맥을 종합하면, ‘홍익인간’은 우주 최고신인 하느님(桓因, 上帝)의 의지, 명령, 물음이다. 한데 그것은 지상에서 특별한 장소성과 연관된다. 이른바 ‘삼위태백’이다.

중국의 오래된 고전 『상서』에도 ‘삼위’가 나온다. ‘삼위에 사람이 살게 되니, 세 묘족들이 크게 다스려졌다.’(三危既宅, 三苗丕斨)<sup>4)</sup> 비록 『상서』와 『고기』의 ‘삼위’가 같은 장소는 아닐 터이지만, 그것이 함축하는 장소성은 통한다. ‘삼(三)’은 동서양 고대 신화와 종교에 아주 흔한 성수(聖數)<sup>5)</sup>이다. ‘위(危)’는 범접하기 어려운 험준한 땅으로 위태로운 처녀지(Virgin Lands)이다. ‘태백(太伯, 太白)’은 으뜸가는 산이자 지극히 밝고 환한 산으로, 광명 신앙의 성소이자 하늘과 통하는 우주산(Cosmos Mountains)을 함축한다. 이를 모두 담은 ‘삼위태백’은 곧 3수, 처녀지, 우주산, 광명 등의 장소성을 표상하는 기호인 것이다.

그런데 신화는 ‘홍익인간’보다 ‘삼위태백’에 방점을 둔다. 하늘의 지고신이 꼭 집어서 택한 우주의 중심에 한민족 고대국가(조선)가 건설되었고, 그 성스러운 도시(神市)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자손이고, 더 나아가 [위에서 인용하지 않은 원문에 따르면] 위대한 조상이 마침내 신성한

4) 『尙書·夏書·禹貢』 여기서 ‘삼위(三危)’는 오늘날 중국 감숙성(甘肅省) 둔황현(敦煌縣) 남쪽에 있는 삼위산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실은 『상서』의 이 구절에 기인해 둔황의 삼위산이 훗날 그 이름을 얻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5) 그것은 일자(一)에서 갈라진 분열의 조화, 균형, 완성, 천지인 삼재, 삼극, 삼족 정립, 삼위일체 등등을 뜻한다.

산 내지는 하늘로 돌아가 신이 되었다는 것이 단군신화의 열개이다. 거기서 ‘홍익인간’은 지고신인 하느님의 의지이자 명령이다. 한데, 그것이 오늘날 흔히 번역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인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그렇게 번역하려면 익(益)이 ‘이롭게 한다’는 동사여야 하는데, 고대 한문에서 그런 용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익(益)은 본래 ‘일(溢)’에서 온 글자로, 물이 그릇에 차서 넘치는 것을 표상한다. 그것은 명사로 ‘이익’의 뜻이 있는데,<sup>6)</sup> 그 경우에 홍익은 ‘큰 이익’을 의미한다. 하지만 홍익인간의 ‘홍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익(益)이 동사로 쓰이면 증익하다(增益, 增加), 보익하다(補益, 補助, 援助, 保佑)는 정도를 뜻한다.<sup>7)</sup> 그에 따라 홍익인간을 번역하면, “인간을 크게 늘리다” 내지 “인간을 크게 돕는다”는 의미가 된다.

오늘날 통상적인 번역의 선입관을 떠나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본연의 문맥에서 본다면, ‘인간을 크게 늘린다(돕는다)’는 것이 실은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하느님이 자기가 택한 삼위태백에서 인간(인간세상)<sup>8)</sup>을 증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한민족 최초의 국가 배후에서 그 사회와 국가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단군신화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환웅은 『삼국유사』에서 꿈을 인간 여자로 변화시켜 단군을 낳고,

6) ‘益’은 오래전부터 ‘이익’이라는 명사, 그리고 ‘유익하다’ 혹은 ‘부유하다’는 형용사로 쓰였다. 예컨대 『尙書·大禹謨』에서 “滿招損, 謙受益”은 ‘이익’이라는 명사로, 『論語·季氏』에서 “益者三友”는 ‘유익하다’는 형용사로, 『呂氏春秋·貴當』의 “其家必日益, 必日榮矣”에서는 ‘부유하다(부유해지다)’는 형용사로 쓰였다. 하지만 고대 한문에서 ‘益’이 동사로 “~~를 이롭게 한다”는 동사로 쓰인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7) 『周易·謙卦』에서 “天道虧盈而益謙”이라거나 『孟子·告子下』에서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이라고 할 때, ‘益’은 동사로 “~~을 증익(증가)하다”는 의미다. 또한 동사로 『戰國策·秦策二』의 “于是出私金以益公賞”처럼 “~~을 보조하다”거나, 혹은 『周易·損卦』의 “或益之十朋之龜, 弗克違”처럼 “~~을 상으로 주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8) ‘인간(人間)’은 사람, 사람들의 공동체, 백성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제왕운기』에서는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고 단수신(檀樹神)과 결혼시켜 단군을 낳게 한다. 그리고 “단군이 조선의 영역에 자리 잡아 왕이 되었고, 시라·고례·옥저·부여·예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강역이 확장되었음을 부각한다.

아버지신(환인)의 명을 받은 아들신(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한 일은, 뱃보다 지상에 자기 후손을 낳아 인간을 증익하는 ‘홍익인간’을 상징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다. 한편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病)·형(刑)·선악(善惡) 등 무릇 인간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재세이화(在世理化)하는”(『삼국유사』) 것 역시 환웅의 역할이요 사명이다. 한테 여기서 환웅은 인간세상의 군장이 아니라, 여전히 천신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천신이 지상에 깃들여(在世), 하늘의 이치로 농사·수명·질병·형벌(천벌)·선악 등을 관장해 다스린다(理化)는 문맥인 것이다.

홍익인간은 신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홍익인간’의 본래 의미는, 인간을 늘리고 인간세계(국가)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했던 한민족 초기국가의 기억, 그리고 신국(神國)·천손(天孫)·선민(選民) 등의 관념으로 구성된 신정(神政)시대의 기억을 간직한다. 이를 선불리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sup>9)</sup> 환웅은 하늘의 무리(귀신) 3천을 거느리고 지상에 머물며 다스리는(在世理化) 세계 배후의 유력한 천신이고, 그의 아들 단군 역시 인간세계를 통치하다가 끝내 신령한 산에 들어가 신(산신)이 되거나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 초기 단군신화는 한민족 고대의 원시 신선사상을 함축한다. 그것은 신인합일(神人合一), 천손강림(天孫降臨), 승선귀

9) 만약 그렇다면 신화는 환웅이 단군을 낳은 뒤 곧바로 퇴휴(退休)하고 지상의 군장이자 인간인 단군에게 ‘재세이화’의 권능을 이양하거나, 혹은 단지 천손이라는 혈통의 정통성을 넘어 하늘의 뜻을 얻기 위한 인간의 주체적 선택 및 작용을 부각해야 한다. 이를테면 주공(周公)이 ‘이덕배천(以德配天)’으로 인간에 대한 하늘의 지배권을 대체했던 것 같은, 그런 천명론의 전환이 일어났어야 한다.

천(昇仙歸天), 신국의식(神國意識), 광명신앙(光明信仰) 등을 주된 요인으로 한다.

이런 단군신화가 13세기 말 고려로 다시 소환된 것은, 대몽항쟁기에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그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느님의 보우, 신령한 조상의 보살핌, 나라의 신성한 기원 등은 예나지금이나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수록 사람들을 더 매혹하는 레퍼토리다. 그것이 주는 감회는 한국인들이 지금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노래하며 가슴 뭉클해하는, 그런 공동체적 정감과 궤를 같이 한다. 한 예로, 12세기 말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동명왕편」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세간에서 동명왕의 신기한 일을 널리 말해 비록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이라도 죄다 이 일만은 능히 말한다. 나도 일찍이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며 “공자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로 황당하고 괴이한 일이라 우리들이 말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 지난 계축년(1193) 4월 『구삼국사(舊三國史)』를 구했는데,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신비롭고 기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러나 처음에는 역시 믿을 수 없어 그저 귀신(鬼)과 헛것(幻)이러니 하였다. 그러다가 세 번 연거푸 탐독하여 깊이 음미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니, 헛것이 아니라 성스러움(聖)이요, 귀신이 아니라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를 직필로 쓴 책에서 어찌 함부로 이를 전하겠는가? 김부식 공이 『국사』를 다시 편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략했는데, ……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신비롭고 기이한 변화로 못 이목을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나라를 창건한 신성한 자취이다. 만약 여기 서술해두지 않으면 훗날 장차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에 시를 지어 이를 기록하니,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의 나라임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sup>10)</sup>

1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 雖愚夫騃婦, 亦頗能說其事. 僕嘗聞之, 笑曰 “先師仲尼, 不語怪力亂神, 此實荒唐奇詭之事, 非吾曹所說. …… 越癸丑四月,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 然亦初不能信之, 意以爲鬼幻, 及三復耽味, 漸涉其源, 非幻

일연과 이승휴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이규보는 무신정변기의 문란한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위대한 조상의 영웅서사를 만났다. 그는 앞 시대에 김부식이 버렸던 사료더미 속에서 동명왕 주몽의 신화를 불러왔다. 유학자들은 이를 괴력난신으로 치부하고 귀신과 헛것의 이야기라고 배제했으나, 이규보는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이요, 귀신이 아니라 신(神)이”라고 재평가하고, 거기서 옛 조상이 “나라를 창건한 신성한 자취”를 발견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의 나라”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 「동명왕편」을 짓노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우외란 시대에 옛 건국신화들이 줄줄이 귀환했다. 그 와중에 환인이 일찍이 지상에 실현코자 의도했다는<sup>11)</sup> ‘홍익인간’ 역시 진술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크게 증익’할 장소로 삼위태백을 선택하고, 거기에 아들신을 내려 보내 단군을 낳아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창건토록 했다는 이야기였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고려 말의 지식인들이 그 신화에서 찾은 것은 옛 조상의 성스럽고 신령한 자취, 나라의 신성한 기원, 더 나아가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조상신의 보살핌, 하느님의 보우였다.

## II. 홍익인간의 중세적 진화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 단군신화가 간헐적이거나 언급됐지만, ‘홍익인간’은 조정의 공식문건에서 다른 구절로 대체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也, 乃聖也, 非鬼也, 乃神也. 況國史直筆之書, 豈妄傳之哉? 金公富軾重撰國史, 頗略其事, 意者公以爲國史矯世之書, 不可以大異之事爲示於後世而略之耶. …… 矧東明之事, 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 乃實創國之神迹, 則此而不述, 後將何觀? 是用作詩以記之, 欲使夫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耳.

11)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이 지상에 구현하려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서 그 대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평양의 연원을 말하며 『단군고기(檀君古記)』에 실린 단군신화를 인용한다. 그 내용은 『제왕운기』의 단군신화와 유사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거기서는 ‘삼위태백’이 아예 언급되지 않고, ‘흥익인간’ 대신 ‘의욕하화인간(意欲下化人間)’이란 구절이 등장한다.<sup>12)</sup>

권람(權擘, 1416~1465)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권근(權近)의 손자로 세조의 권신(權臣)이었다. 그가 지은 『응제시주』도 『고기』를 인용해 단군신화를 진술하는데, 내용은 『삼국유사』의 그것과 통한다.<sup>13)</sup> 한데 거기서도 ‘삼위태백’이 없고, ‘흥익인간’ 대신 ‘의욕하화인간’이라고 한다. 조선 초 조정의 공식문건 및 유력한 권신의 글에서 단군신화를 인용하면서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는 단지 우연이 아니고,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런 문맥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대조하기 위해 표를 만들어보았다.

〈표 1〉 여말선초 단군신화 진술 대조표

출처	번역	원문
① 『삼국유사』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해 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b>흥익인간</b>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神市라 하고, 이분을 일러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昔有桓因, 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 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 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12)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平安道·平壤府」: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濊與貊, 皆檀君之理.”

13) 권람, 『應製詩註』: 『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曰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率徒三千降於太白山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桓或云檀, 山即今平安道熙川郡妙香山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p>② 『제왕운기』</p>	<p>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환웅이라 하였다. 일러 말하기를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b>홍익인간</b>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하여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고 귀신 3천을 거느려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분을 일러 단웅천왕이라 하였다.</p>	<p>上帝桓因，有庶子，曰雄云云。謂曰“下至三危太白，弘益人間歟。”故雄，受天符印三箇，率鬼三千，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是謂檀雄天王也云云。</p>
<p>③ 『세종실록』 「지리지」</p>	<p>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이름이 환웅이고, <b>하화인간(下化人間)</b>할 것을 <b>의욕</b>하여, 하늘로부터 삼인(三印)을 받아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분이 단웅천왕이다.</p>	<p>上帝桓因有庶子，名雄，意欲下化人間，受天三印，降太白山神檀樹下，是爲檀雄天王。</p>
<p>④ 『응제시주』</p>	<p>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환웅이라 하였고, <b>하화인간을 의욕</b>하여, 하늘로부터 삼인을 받아,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분을 일러 단웅천왕이라고 하였다.</p>	<p>上帝桓因有庶子，曰雄，意欲下化人間，受天三印，率徒三千降於太白山神檀樹下，是謂檀雄天王也。</p>

단종 2년(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가 완성됐고, 권람이 세조 8년(1462년) 『응제시주』를 간행했다. 『삼국유사』 및 『제왕운기』가 편찬된 13세기 말로부터 불과 2백년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단군신화의 문맥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뀌었다. 그 변화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위태백’이 신화에서 사라졌다. 이는 신화의 장소성을 소거한다. 즉 한 장소에 우주의 중심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선 초의 단군신화에서 ‘신시’가 대개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둘째 ‘홍익인간’이 ‘하화인간’으로 바뀌었다. 하화인간(下化人間)은 불교의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연상시킨다. 불보살이 위로 보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 중생을 교화해 제도하듯이, 환웅이 “하늘 아래로 내려와 인간을 교화”하기로 의욕했다는 것이다.

셋째 고려 말의 단군신화(①②)에서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며 홍익인간할 것을 의욕하는 주체가 환인(하느님)이었다면, 조선 초의 단군신화(③④)에서는 그 의욕의 주인공이 환웅으로 환치된다.

그밖에 ‘천부인 3개’(天符印三箇)가 ‘3인’(三印)으로 단순화해 표기되고, 환웅이 하늘에서 거느리고 내려온 무리 3천이 ‘귀신’(鬼)이라는 언표도 사라졌다. 한편 각도를 달리 보면, 애초의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인간세상을 탐해 구”하고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 할만하다”고 판단한 것을, 훗날 환웅이 ‘하화인간을 의욕했다’고 몽뚱그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홍익인간’이 ‘의욕하화인간’ 안에 숨은 셈이 된다. 어쨌건 문맥상 효과는 같다.

총괄하면, 여말선초에 단군신화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요인을 벗어나고, 인본주의에 보다 가까운 이야기로 전환됐다. 아버지 환인(하느님, 하늘)의 의지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대신 아들 환웅의 의지가 부각되었다. 거기서 환웅은 천상에서 내려와 온갖 인간사를 관장하는 천신의 이미지를 탈각했고, 불교의 전륜왕이나 유교의 성인처럼 지상에서 교화를 펼치는 성스러운 군왕으로 묘사되었다. 물론 그 뒤를 잇는 단군은 한결 지상적인 존재였다.

한편 ‘삼위태백’과 ‘신시’의 소거는, 하늘이 우주의 중심으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한다는 신정시대의 관념을 해체하고, 단군신화에서 북방 및 평양을 거점으로 하는 국지적 성격을 삭제했으며, 더 나아가 인간세계 어디나 환웅의 하화(下化)가 미칠 수 있는 장소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삼위태백에서 인간을 크게 늘린다(홍익인간)’는 고대의 소박한 정치 이상이 마침내 ‘아래로 인간을 교화하기를 의욕’한다는 중세적 교화(教化) 및 치화(治化)의 이념으로 대치되었다. 비록 ‘홍익인간’ 개념이 역사의 무대 뒤로 숨었지만, 그것은 홍익인간에 처음 부여됐던 고대 종교적 성격과 협애한 민족지적 함의를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숙려기간을 거쳐 인본주의적으로 한층 성숙하고 보편적으로 확장된 이념이 예비되었다.

### Ⅲ. 홍익인간의 근대적 진화

단군신화에서 잊혀졌던 ‘홍익인간’은 한참 뒤에야 역사에 재등장한다. 1920년대 신민족주의자들이 이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통합할 지도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는데, 외래사상이 아닌 토착적이고 고유한 유산에서 통일이론을 찾던 국학운동가들이 ‘홍익인간’을 발견했다. 조소앙과 안재홍·정인보 같은 신민족주의 성향의 국학자들이 사상·계급적 대립을 극복해 통일민족국가를 이룰 지도원리로 홍익인간 이념을 재해석하고, 그 이념을 일반에게 적극 보급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은 특히 균등(三均)사상의 측면에서 홍익인간을 해석하여 통일국가건설과 세계일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공리로 규정했다.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다사리’로 만민공생·대중공영하는 민주주의와 민생주의를 주창하고, 그 정치원리로 홍익인간을 재해석하여 ‘새시대창건의 지도원리’로 삼았다.<sup>14)</sup>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번역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는 고대 한문의 어법에 맞는 번역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사상의 영향에서 고어를 재해석한 결과였다. 통일국가, 세계일가, 만민공생, 대중공영 등의 근대적 정치·경제 원리를 표상하는 기호로 ‘홍익인간’이 소환됐고, 그 이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우리말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번역이 채택된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위로 이것이 일반적 번역으로 정착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런 번역을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홍익인간을 재발견한 1920년대 신민족주의자들 사이에 홍익인간을 그런 방향에서 해석

14) 정영훈, 「홍익인간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정영훈 외, 『홍익인간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5~18쪽.

한 인물이 있고 그 해석을 대중이 뒤따랐다고 추정하며, 특히 삼균주의를 창시한 조소앙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sup>15)</sup> 필자 역시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조소앙은 독립운동 진영의 독보적인 이론가로 여러 조직과 단체의 공식문건들을 작성했다. 1941년 공포된 「대한민국건국강령」도 그가 기초했다.<sup>16)</sup> 그 제1장 총강(總綱) 제2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sup>1)</sup>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sup>2)</sup>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각급(社會各層各級)이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를 균평(均平)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러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sup>3)</sup>과 이화세계(理化世界)<sup>4)</sup>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最高公理)임<sup>17)</sup>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은 『고려사』에서 『신지비사(神誌秘詞)』를 인용한 것이다.<sup>18)</sup>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삼국유사』에서 『고기』를 인용한 것이다. 이런 각 구절을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首尾均平位: 머리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골고로하함. 興邦保太平: 나라를 일으키고 태평太平을 보지保持함. 弘益人間: 넓이 사람을 이익利益 케함. 理化世界: 진리로 세계를 화함<sup>19)</sup> 이 구절들이 설령 멀리 단군시대로부터 왔더라도, 그 번역은 실상 근대의 이념을 담는다.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은 『신지비사』에서 고려의 [특히 남경인 서울

15)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조선단군학』 34, 2016.

16) 「國務會議 重要記事」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2號, 臨時政府 秘書處 發行, 大韓民國 23年(1941).

17) 「大韓民國建國綱領」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2號.

18) 『高麗史』 「列傳」 卷35, ‘金謂磾’.

19) 「大韓民國建國綱領」 『大韓民國 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 第1輯, 宣傳部 發行, 大韓民國 二十八年(1946), 14쪽.

의 풍수를 말하는 대목에 보인다. 원문이 ‘精首尾, 均平位, 興邦保太平’이고, “[저울의] 머리와 꼬리를 정밀하게 하여 평형을 잡는다면 나라를 융성하게하고 태평성대를 지킬”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머리와 꼬리란 “저울추(秤錘)와 저울접시(極器)에 비유하면, 저울대(秤幹)가 부소扶疎이고, 저울추가 오덕五德이 있는 땅이고, 저울머리가 백아강百牙岡이면, ..... 송악松嶽이 부소가 되니 이로써 저울대로 비유하고, 서경이 백아강이 되니 이로써 저울머리로 비유하고, 삼각산 남쪽이 오덕의 언덕(五德丘)이 되니 이로써 저울추로 비유한다”<sup>20)</sup>운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수미균평위’는 평양(서경)을 머리로 개성(송악)과 서울 남쪽의 꼬리까지 ‘평형의 위치(平位)를 고르게 한다(均)’는 풍수론의 문맥이었다. 그것이 “머리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골고로히함”으로 번역되어, “지력·권력·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한다”는 삼균 이념의 근거가 되었다. 앞서 살폈듯이 ‘널리 인간을 늘린다’는 뜻이었던 단군신화의 홍익인간이 “넓이 사람을 이익케함”으로 번역된 것도, 신화의 근대적 전이(轉移)에서 발생했다. ‘이화세계’는 더욱 그렇다. 『삼국유사』의 ‘재세이화’는 ‘천신(환웅)이 세상에 깃들어(있으면서) 하늘의 이법으로 다스린다’는 신정(神政)의 문맥이다. 그러나 ‘이화세계’에 대한 번역인 “진리로 세계를 화함”은 이성의 계몽을 말하는 근대의 이념이다.

시대마다 달리 해석된 ‘홍익인간’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인간(세상)의 형편을 반영했다. ‘크게 늘리기’가 홍익의 고대적 함의라면, ‘교화하기’는 중세의 원리였고, ‘널리 이익케함’은 근대성을 표상한다. 고대에는 나라든 사람이든 늘리는 것이 중요했고, 하늘은 이런 ‘늘리기’의 성패를 결

20) 『高麗史』「列傳」卷第35 ‘金謂碑’ : 『神誌秘詞』曰 “如秤錘·極器, 秤幹扶疎, 樑錘者五德地, 極器百牙岡. 朝降七十國, 賴德護神. 精首尾, 均平位, 興邦保太平, 若廢三諭地, 王業有衰傾. .... 松嶽爲扶疎以諭秤幹, 西京爲白牙岡以諭秤首, 三角山南爲五德丘以諭秤錘.”

정짓는 권능의 원천이었다. 중세에는 나라든 사람이든 교화하는 것이 중요했고, 군왕과 특권계급이 종교·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 ‘교화하기’를 주도했다. 근대에는 나라든 사람이든 이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국가와 만민(대중)이 ‘이익케함’을 산출하면서 향유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늘리기>교화하기>이익케함’으로 진화한 이런 서사의 변경이야말로 어쩌면 신화의 본질이다. 신화는 한두 세대에 그치지 않고 수 세기 혹은 수십 세기에 걸쳐 전하고, 그런 와중에 변천하는 여러 세대와 민족과 공동체(국가·사회 등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증감되고 뒤섞이고 각색되고 반복되면서 후대로 전승된다. 신화가 역사를 말하는 듯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과거의 사실을 단지 있는 그대로 전하지는 않는다.

신화는 선사시대에 이미 생겨났을 이야기의 흔적들부터 간직한 깊은 지층부터, 각 시대마다 추가로 더해지고 유동하고 변형된 이야기의 층리(層理)들이 중층으로 퇴적된 지질학적 연대기를 그 안에 품는다. 신화의 지층을 탐사하는 지식고고학에서는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연대가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최종으로 기록된 연대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화란 결국 기원에 관해 사유하는 주체가 과거와 나누는 대화이자, 주체와 과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탄생하는 현재적 서사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과거에 묶인 박제가 아니라, 늘 현재로 진화하는 활물이다.

그러니 신화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잘못이나, 신화가 역사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이다. 사람들이 신화의 참된 뜻(이념, 의미, 가치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개 신화의 본래 뜻이 후대에 발견된 경우보다, 후대에 가치롭게 여기는 의미를 신화에 투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신화를 해석하는 것은 산문읽기보다 시문읽기에 가까워서, 은유와 환유 주술적 언어와 의미론적 기호의 사이를 오가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지적 수준·사상적 지향·철학의 품격 등을 훨씬 민감하고 풍부하게 반영한다.

그리하여 한 시대 혹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신화의 해석은, 그 자체로

신화의 역사에 결을 남기는 층리로 퇴적되어, 마침내 그 신화의 일부가 된다. 『삼국유사』 『제왕운기』의 “홍익인간”, 『세종실록』 『응제시주』의 “교화인간”, 「대한민국건국강령」의 “넓이 사람을 이익케함”은 모두 그 시대 최고 수준의 지성에 의해 신화에 투영되어 수천 수백 수십 년간 지속되며 그 신화의 일부가 된 지층들이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신화의 역사 안에 수렴되어 홍익인간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 문화의 결을 두텁게 만들어왔다.

흔히 이를 ‘신화의 재발견’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를 ‘신화의 진화’로 본다. 재발견은 원래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데 그치지만, 진화는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층 위에 변화가 더해져 부단하게 갱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은 퇴화하지만 그것도 진화의 일면이고, 퇴화는 진화의 반의어가 아니다. 이런 진화과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변화이듯, 신화의 진화 역시 신화 밖의 세계와 사상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의 계기를 포착한다.

#### IV. 삼균의 홍익인간과 전병훈의 정신철학

그렇다면 홍익인간이 “넓이 사람을 이익케함”으로 번역되고, “사회각층 각급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한다”는 이른바 ‘삼균’의 이념으로 진화하도록 만든 사상적 환경의 작용은 무엇일까? 여기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홍선희는 손문孫文의 삼민주의, 대동사상, 서구의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단군사상 등에 주목했다.<sup>22)</sup> 정영훈은 대중교의 영향

21) 생물학적 진화가 다만 생존과 번식에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고 생물 간의 우열을 가리는 개념이 아니듯, 신화가 사회적 환경에 맞게 진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아진다(발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을 들었다.<sup>23)</sup> 하지만 삼균제도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에 역사적 근거를 둔다는 조소앙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다음 구절이 흥미를 끈다.

신인이 태백산 정상(지금 묘향산)의 박달나무 아래에 있어, 나라사람들이 세워 임금으로 삼고 ‘단군’으로 불렀다. 단군은 신령한 지혜와 성스러운 덕이 있었으며, 농기구를 제작하고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쳤다. 글자를 만들어 옛사람들이 사용토록하고, 덕을 바로세우는(正德) 정사를 펼쳤다.<sup>24)</sup>

1920년 전병훈이 북경에서 출간한 『정신철학통편』에 보이는 구절이다. 여기서 단군의 치세를 ‘경제’(制耒耜教民稼穡) ‘교육’(造書契爲前民用) ‘정치’(敷設正德之事)의 세 방면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는 삼균과 통하고, 또한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이라는 주장과도 같다. 전병훈은 경제 방면에서 토지공유(公田)와 균산(均產)을 주장하고, 교육은 “한 백성도 배우지 않는 자가 없고, 한 백성도 가르치지 않는 자가 없는”(無一民不學, 無一民不教)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 정치는 민주와 공화를 주창했으며, 그것이 단지 서구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사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을 그 시원으로 삼았다.

거기 4252년 전 10월 3일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강림한 신인이 있어 나라 사람들이 세워 임금을 삼으니, 민주의 기틀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

22)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23) 정영훈, 「민족고유사상에서 도출된 통일민족주의: 삼균주의와 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40, 2019.

24) 전병훈, 『精神哲學通編』, 「道德哲學」第八章, 朝鮮道德始開化: 有神人于太伯山頂(今妙香山)檀木下, 國人立以爲君, 名曰檀君. 君有神智聖德, 制耒耜教民稼穡, 造書契爲前民用, 敷設正德之事.

이 단군으로, 곧 동방 한국을 창립한 군주이자 스승(君師)이었다.<sup>25)</sup>

그런데 이런 민주의 전통은 단군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동서양의 초창기를 거슬러 탐구하면, 비록 군주의 호칭이 있더라도 ‘민주’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문맥에서 말하는 것이다. “맨 처음 가족에서 부락 추장이 나오고 추장에서 임금을 세운 것이 틀림없는데, 그때부터 줄곧 군중이 합의 해서 추대해 세웠으니, 그러므로 민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실증이 없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중국의 복희·신농·요·순, 한국의 단군과 동명왕이 모두 백성이 추대해 세운 군주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한다.<sup>26)</sup>

또한 전병훈은 “토지를 균등하게 획정해서 백성의 재산이 고르게 되면, 녹봉·학교·군대의 제도를 제정하되 모두 백성 수에 따라 조직”할 것을 말한다. 학교제도는, 삼대(三代) 이전의 “옛날에 상서(庠序) 학교를 세워서 대소학을 가르치고, 마을마다 삼노(三老)가 동네 어귀에 앉아 촌민들이 드나들 때마다 효제충신의 행실을 가르치고, 또 법을 낭독(讀法)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을 예로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성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지 않음이 없고, 백성 한 사람이라도 배우지 않음이 없도록 하니, 지금 각 나라의 의무교육제도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토지를 다스린 이후에 차례대로 거행하는 제도이다.<sup>27)</sup>

25) 전병훈, 위의 책, 「第一篇.東韓神聖檀君天符經註解」: 粵在四千二百五十二年十月三日, 有神人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立以爲君, 可謂民主開基. 是爲檀君, 卽東韓創立之君師也

26) 전병훈, 위의 책, 「政治哲學」‘序論’: 溯究東西草創之世, 雖有君皇之名稱, 而罔非民主者, 何哉? 始初自家族而部落酋長, 自酋長而立爲君皇者, 必也. 一從人羣之議諧, 推戴以成. 故曰“可名爲民主也.” 決非征戰爭鬪而立矣. 此非曆史之證確, 而可以無疑者乎. 中之義·農·堯·舜, 東韓之檀君·東明, 爲民推立者, 照然若揭也.

삼균의 문법으로 말하자면, 곧 균산의 경제적 균등이 우선이고 그 연후에 균지의 교육적 균등을 시행해야한다는 문맥이다. 이런 균산, 균지는 균권의 토대에서 나온다. 곧 권력이 전제군주 1인이나 특권계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합의해서 군장을 추대하는 ‘민주’에서 가능한 것이다. 전병훈은 단군이 동방 한국(東韓)에서 이런 “민주의 기틀을 열었던” 군주이자 스승(君師)이었다고 천명한다.

전병훈은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층 위에 다시 근대의 지적·사상적 변화에 반응하여 더 복잡하고 고차적인 단군 이야기를 더했다. 단군은 ‘신령한 지혜와 성스러운 덕’(神智聖德)을 지닌 신인으로 고대 신화의 기억을 간직하지만, 정신수련의 비결을 체득한 선인(仙人)이면서 성스러운 군주를 겸하여(兼聖) 도교와 유교의 정수를 한 몸에 보존하고, 다시 서구에서 유래한 근대적 민주·균산·보통교육 이념마저 선취하여 ‘동한을 창립한 군주이자 스승’(東韓創立之君師)으로 재탄생한다.

전병훈은 1917년 계연수(桂延壽)가 묘향산에서 발견했다는 「천부경」을 그 다음해에 받아 주해했으며, 저서인 『정신철학통편』 도처에서 단군을 언급하고, 자기 철학의 궁극적인 시원의 하나로 단군을 지목했다. 그에 의해 단군의 정신은 “하늘과 사람을 포괄하고, 도에 극진하면서도 성스러움을 겸하는”(包括天人, 道盡兼聖)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단군은 신인(神人)에서 철인(哲人)으로, 하늘이 내린 군주에서 백성이 추대한 군주로, 신정과 도덕 교화의 상징에서 민주의 시원으로 거듭났다. 전병훈이 ‘홍익인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로부터 진화한 단군 이야기에 훗날 ‘홍익인간’ 이념

27) 전병훈, 위의 책, 「政治哲學」第五章. 禹平水土, 畫州井田, 實行黃帝邱井法哲理: 既畫井以均民產, 則制祿·學校·兵車之制, 皆從民數而組織之. ……制祿, 務致豐厚以養廉恥. 如今美英各邦之制, 可謂盡善矣. 學校之制, 則古者設爲庠序學校, 大小學以教之, 每鄉鄉三老坐於閭門, 凡民出入, 教以孝悌忠信之行. 又有讀法之規, 要使無一民不教, 無一民不學, 與今各國強迫教育之制, 可謂脗合者也. 此皆治地以後次第舉行之制也.

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처럼 단군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혹은 거기서 인용하는 『고기』에서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 등의 조대를 거쳐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다시 근대의 이념에 반응해 이야기가 증감되고 뒤섞이고 각색되어 진화했다. 이렇게 진화한 단군신화가 192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되어, 그 토대에서 홍익인간이 “넓이 사람을 이익케함”으로 번역되었고, 그것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실렸으며, 마침내 해방 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확정되어 현행 「교육기본법」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조소앙 등 신민족주의자들이 전병훈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이른다. 그렇지만 앞선 연구에서 삼균주의의 배경으로 여러 사상들을 병렬한 것에 비하면, 전병훈의 철학사상이 1920년대 이후 홍익인간 이념에 한층 가까운 것은 틀림없다. 1920년대 전후로 이뤄진 단군신화의 진화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의 출현<sup>28)</sup>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있고, 단지 그 대략만 말할 수 있다.

20세기 초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고 나라가 물리적으로 무너졌으나, 스스로 한국인으로 여기는 사람(국민, 민족)과 그들의 정신은 존속했다. 그 정신을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했고, 거기서 단군이 다시 소환되었다. 종교·철학·정치 등의 여러 방면에서 단군이 재해석되고, 그런 가운데 ‘홍익인간’ 이념도 출현했다. 단군교(대종교), 전병훈의 정신철학, 신민족주의 등에서 단군 이야기가 진화한 궤적을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분량이 한정된 본 논문에서 그들 간의 영향관계까지 상세히 논구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다음 과제로 넘기고자한다.

※ 투고일자 : 2019. 11. 25 심사일자 : 2019. 12. 11 게재확정일자 : 2019. 12. 15

28) 고대 단군신화에서 홍익인간은 신화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한 종속 요소에 그쳤고, 1920년대에 와서야 홍익인간이 하나의 이념으로 ‘출현’했다.

## 〈참고문헌〉

『尙書』

一然, 『三國遺事』

李承休, 『帝王韻紀』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權學, 『應製詩註』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高麗史』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2號, 臨時政府 秘書處 發行, 大韓民國 23年  
(1941)

『大韓民國 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 第1輯, 宣傳部發行, 大韓民國 二十  
八年(1946)

全秉薰, 『精神哲學通編』(영인본), 명문당, 1983.

정영훈 외, 『홍익인간이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정영훈,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조선단군학』 34, 2016.

정영훈, 「민족고유사상에서 도출된 통일민족주의: 삼균주의와 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40, 2019.

〈Abstract〉

## A Study on the Hongikingan Chronology : Change of Dangun myth and evolution of Hongikingan

Kim, Sung-Hwan

Hongikingan(弘益人間) was the founding ideology of ancient Joseon (古朝鮮), and it is also the basic philosophy of modern education set by the Korean Education Law. The ancestors who established Korea's first nation created Dangun mythology, and the Hongikingan also emerged. It is a story created by the imaginary world of ancient people, but it has been changed and complicated over thousands of years and is still accepted as a living story. Hongikingan was God's will or command to expand man's world by helping people in the early Korean nation. In the Middle Ages, it changed to the idea of enlightenment and rehabilitation of human beings. In modern times, it has evolved into a modern ideology that benefits humans widely. These myths influenced politicians and historians of many ages, became important elements in folklore and religion,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Korean culture as a whole.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Hongikingan ideology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and explores the modern philosophical grammar that rediscovers Hongikingan. In particular, noticed the case that Jo So-Ang interpreted Hongikingan as an egalitarianism, and discuss the parallels between it

and Jeon Byung-hoon's philosophy.

※ key words : Hongikingan, Jo So-Ang, Three Equalitarianism(Samgyun), Jeon Byung-hoon